

고추 탄저병 방제, 장마 전에 ‘꼭’

덥고 습한 날씨로 확산 가능성... 예방 약제 뿌려 병원균 밀도 낮춰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장마가 지나고 나면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고추 탄저병이 확산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을 지난 17일 당부했다. 탄저병에 걸린 고추는 열매에 어두운 초록색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점이 생기고, 병원균 포자들이 겹무늬 모양의 덩어리를 생성한다. 고추 열매에 직접 해를 끼쳐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만큼 지난해 병 발생이 심했던 농가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탄저병은 비가 잦으면 발생이 증가하는데 장마 전 예방 차원에서 약제를 뿌리면 장마 이후 약제를 뿌리는 것보다 방제 효과를 30% 정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비가 오기 전에는 병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열매 표면에 약액이 골고루 묻도록 등록 약제를 뿌려줘야 한다. 또한 곰팡이 번식체인 포자가 비바람에 의해 튀어 다른 열매에 2차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병든 열매는 발견 즉시 제거해 태워야 한다. 병든 과실



탄저병에 걸린 고추

을 줄기에 그대로 두거나 이랑 사이에 버리면 전염원이 돼 농약 살포 효과가 눈에 띄게 감소하므로 재배지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해마다 탄저병 피해를 본 농가라면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 재배하는 것이

좋으며, 아주심기 후 이랑을 부직포 등으로 덮어주면 빗방울로 인해 토양에 있던 병원균이 튀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기존보다 심는 거리(재식거리)는 넓히고 두둑은 높이며, 큰비가 내리기 전 물 빠지는 길(배수로)을 정비하는 것이 좋다. 고추 탄저병 적용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akr) 주요 화면 중 ‘농약검색’ 메뉴에서 작물 이름과 병 이름에 각각 ‘고추’와 ‘탄저병’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김동환 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병해충 발생이 잦아지는 만큼 병 저항성 품종을 심고,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 전부터 예방 차원의 방제를 해줘야 한다”며 “꼼꼼한 예찰을 통한 조기 발견과 제때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써 달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7일 김제시 석산영농조합법인을 방문, 밀 수확과 콩 피종 상황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걱정 없이 밀·콩 농사 전념할 수 있게 지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제 석산영농조합법인 방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7일 김제시 석산영농조합법인을 방문, 밀 수확과 콩 피종 상황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석산영농조합법인은 청년 농업인들이 논공을 대안위로 재배하는 농업법인이다. 현재 전북에서 콩을 재배하는 30~40대 청년 농업인 모임인 거두질미(巨豆絶米) 콩을 키우고 쌀을 줄이자) 회원이다.

축분퇴비 토양 환원 등으로 10a당 467kg의 생산 단수를 기록, 전국 평균(10a당 203kg)의 두 배를 넘어 지난해 제1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별대회에서 대상 수상한 바 있다. 정황근 장관은 국제 곡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 생산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청년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걱정 없이 밀·콩 농사

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수 개선 등 생산기반 정비와 시설·장비 지원뿐 아니라 직불제 등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곡물 중 소비 비중이 높은 밀·콩 자급률을 각각 2020년 0.8%, 30.4%에서 2027년 7.9%, 40.0%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밀·콩 재배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

‘어부바 차량’ 기부 나눔·상생 실천

실험, 교통약자 위해 5년동안 차량 18대 기부

김윤식 이사장 “올해도 확대 나눔 철학 전할 것”

실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재단이)이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5년 연속 ‘어부바 차량’을 기부하며 나눔과 상생의 실험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노약자들은 대중교통 이용마저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차량 운영이 어려운 취약계층에서 이동제한 문제는 더 컸다. 이에 재단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전국 단위로 기부를 확대하고, 필요한 단체에 손을 내밀었다.

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8대, 11억 원 상당의 차량을 기부했다. 기부처와 지원내용은 △대 전사업체육재회원 저상버스 1대 △소속도 승합차 1대·1톤 트럭 1대 △대전서구청 45인승 휠체어 리프트 버스 1대 △세계로지역이동센터 승합차 1대 △성남시청 29인승 휠체어 리프트 버스 2대 △대전자혜원 승합차 1대 △정선시니어클럽 승합차 1대 △은평어르신돌봄통합 지원센터 소형차 1대 △한마음장애인지원센터 승합차 1대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 승합차 1대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승합차 1대 △(사)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경차 1대 △숙초시니어클럽 승합차 1대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지원센터 1톤 트럭 1대 △함께걸음의료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승합차 1대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원주지회 승합차 1대이다. /김윤성기자

재단은 ‘어부바 차량’ 기부를 통해, 휠체어 사용, 맹인안내견 동승 등의 문제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으로 거동이 힘든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왔다. 교통약자들의 이동지원은 병원 방문 등 생활편의는 물론, 경제활동 참여 기회도 높인다. 실험은 이러한 지역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및 생존권 향상에 크게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받았다. 김윤식 재단 이사장은 “주거, 차량 등 생활 인프라에 투자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지난 코로나19 동안 이동 제한 문제를 더욱 심하게 겪었다”며 “실험은 현재까지 어부바 차량 기부 사업으로 11억 원 상당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사회적 약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위한 기부를 확대하고 실험의 나눔의 철학을 널리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성기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주거·생활환경 개선

전개공,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 조성공사 착공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익산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의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익산 부송 4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가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익산시로부터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를 득해 그간 미진했던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장물 철거, 문화재 조사, 조성공사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익산시 부송동 286번지 일원 29만 4,281㎡ 규모에 1,671세대를 수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공동주택(3필지), 단독주택(77필지), 근린생활시설(37필지), 상업용지(45필지), 공원, 녹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부송4지구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내 하도급 및 자재 업체를 최대한 참여시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하고, 건설하고 폐쇄한 단지조성이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당신 덕분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전주상의 이승복 사무처장, 자서전 출간 25일 출판기념회... 수익금 전액 기부키로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승복씨(사진)가 본인의 삶의 궤적을 담은 자서전 ‘당신 덕분에 꿈을 이루었습니다’를 내놨다. 이 책은 점점 각박해지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저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노력과 열정보다 자신의 위로와 응원, 우리가 함께 만들고 이뤄온 삶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따뜻하고 잔잔한 위로를 주고 있다. 이승복 처장은 목민심서에 나오는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좇지 말고 반드시 民(민)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하여 법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며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승복 처장의 열정과 신념은 전라북도 도청에서 국장과 군산·진제부시장을 역임하는 자리에 이르렀고, 또한 전북도청 베스트 간부 공무원으로 2회나 선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대학에 편입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한편 건축사공기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



는 등 많은 이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부임 후에는 코로나 19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 일자리 창출과 기업 애로해소에 전념하는 등 지역 대표 경제단체 임원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해 내고 있다. 이승복 처장 자신의 생애와 40년 공직 경험을 담은 ‘당신 덕분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출판기념회는 오는 25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오후 1시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는 통해 얻어진 수익금 전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다. /김윤성 기자

수의과학연구개발 ‘디딤돌’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생명자원은행, 자원 1000만주 돌파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orea Veterinary for Culture Collection)에서 확보한 수의생명자원이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 1만주를 넘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은 병원성(세균, 바이러스)과 비병원성(유전체, 표준혈청, 출기세포 등) 생명자원 수집을 위해 검역본부가 수의 분야 최초로 지난 2008년도에 설립했다. 지난 12년 동안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 등에 수의생명자원을 3,000주 이상 분양해 생명자원 개발을 통한 백신 조성물질을 개발 다수의 특허 출원 확보하는 등 수의 분야를 넘어 생명과학 분야 연구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수집한 자원을 수의생명 분야의 연구자료 및 기초자료로 제공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가치가 높은 생명자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수집 및 보존을 통해 나고이역정서 협

약에 따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하는 등 수의생명자원 분야 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병원체 자원 수집 네트워크의 확보, 연도별 분양 지원 건수의 확대, 국외 표준주의 대체주 개발 등 보다 체계적인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운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수의생명자원의 확보 및 활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의생명자원이 필요한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은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누리집(https://www.kahis.go.kr:9000/kvcc)에서 보유자원 검색이 가능하며, 분양, 기탁, 수입, 국외 반출 승인, 병원체 관리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 형질분류과장은 “수의생명자원 1만주 이상 보유는 적지 않은 성과이며, 향후 다양하고 유용한 수의생명자원 확보를 위해 민간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로봇 시대를 열다’

전일고 등 도내 고교 대상

JB 인문학 강좌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후원으로 운영하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우)은 지난 16일 고창여자고등학교와 전일고등학교에서 ‘2022 JB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JB인문학 강좌는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도내 청소년들에게 학습 동기 부여와 미래의 꿈 설계 및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진행한다. 이날 강연은 ‘로봇 정신’의 저자이자 로봇공학자 한재권 교수가 ‘노동의 새로운 정의 로봇’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다.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로봇의 역할’을 인용하여 로봇과 함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DARPA Robotics Challenge 도전과 로봇컵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사례를 전달하며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관계자는 “집합 인원이 해제되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강연을 선물 해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명강사를 초청해 학생들이 희망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인문학 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에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JB인문학 강좌는 도내 청소년들의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전북은행의 대표적인 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58회에 걸쳐 53개교 2만2,550명의 학생들에게 실시했다. /김윤성 기자

고창부안축협 축산물, 농협 대전 노은점에 출하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사중)은 대전 최대 한우축매인 15~19일 ‘한우 숯불구이 축제’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농협유용 대전 노은점(점장 김경



구)에 축산물 출하·판매를 개시했다. 특히, 농협유용 노은점의 김경구 점장은 “앞으로 고창부안축협 조합원이 생산한 우수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한우와 돼지를 이곳 대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한우·한돈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실익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도 최대한 유통마진을 줄여 값싸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창부안축협은 철저한 사육관리와 양질의 사료 공급을 위한 자체 TMF사료공장 운영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깨끗한 농장 인

증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깨끗한 농장 조성과 가족이 생애중 받는 스트레스가 육류 섭취과정에서 인간에게 전이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동물복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고창 지역은 세계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그 어느곳보다 청정환경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다. 김사중 조합장은 “우리 농가들이 정성들여 키워낸 축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농협유용에 고마움을 전하며, 명품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